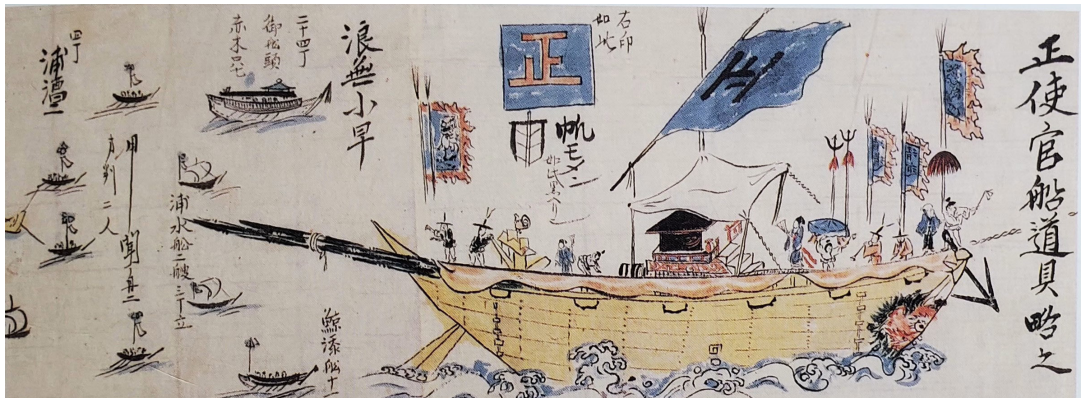


4. 移動と手段・이동과 수단

A. 海路と船・바닷길과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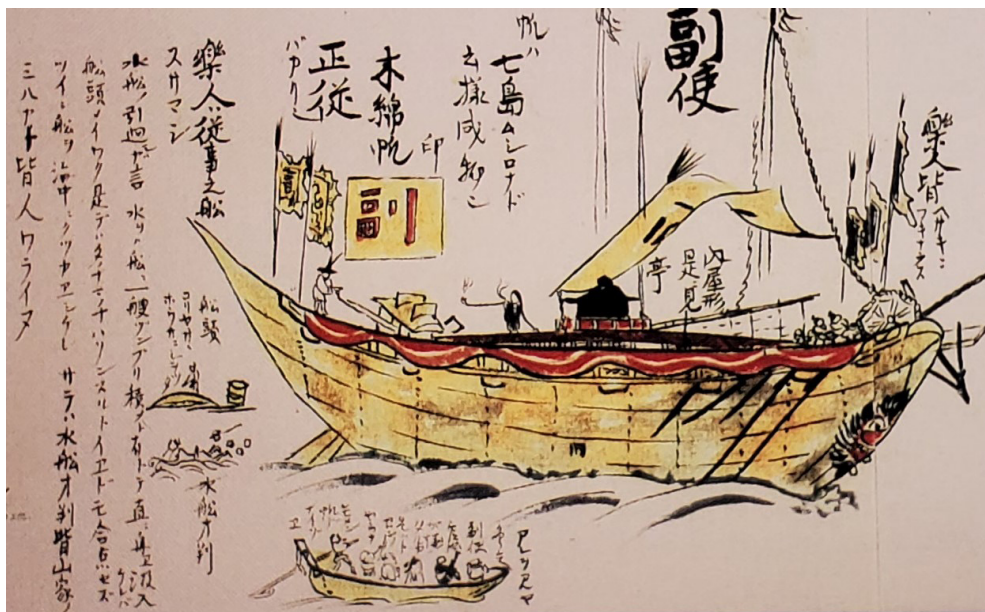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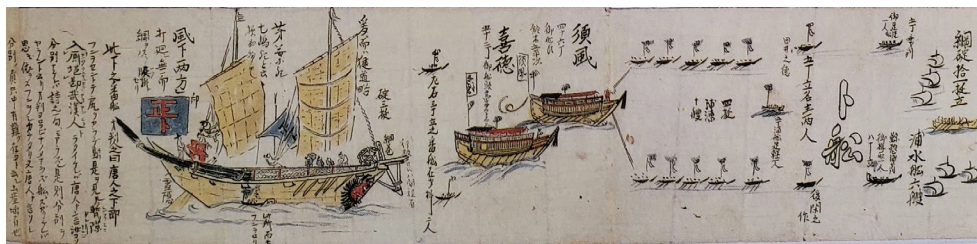
朝鮮通信使の船旅は釜山から対馬、壱岐、藍島、赤間関、上関、蒲刈、鞆の浦、牛窓、室津、兵庫津、摂津大坂、山城淀までです。大坂から伏見までは川御座船で淀川をのぼり、以後、江戸までは陸路で往復しました。各港では潮待ちなどで各藩の迎賓館(茶屋)に3日から5日は宿泊しています。大坂からは川御座船とよばれる豪華船で一艘に70人の人足が、淀川の兩岸から綱引きで現在の淀まで漕ぎます。

조선통신사가 배로 이동한 것은 부산에서 대마도, 이키, 후쿠오카 아이노시마, 야마구치 아카마가세키, 야마구치 카미노세키, 히로시마 카마가리, 히로시마 후쿠야마 토모노우라, 오카야마 우시마도, 효고 무로쓰, 효고쓰, 셋츠오사카, 야마시로 요도까지다. 이후부터 육로로 이동했다. 각 항에서는 밀물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각 번의 영빈관에서 3일 또는 5일을 숙박했다. 오사카부터는 가와고자부네라고 불리는 호화선 한척에 70명의 인부가, 요도강의 양쪽 기슭에서 줄로 당겨 현재의 요도까지 끌어당겼다.



「朝鮮使節來朝覺圖卷」一卷 紙本着色 「조선사절래조각도권」 일권 지본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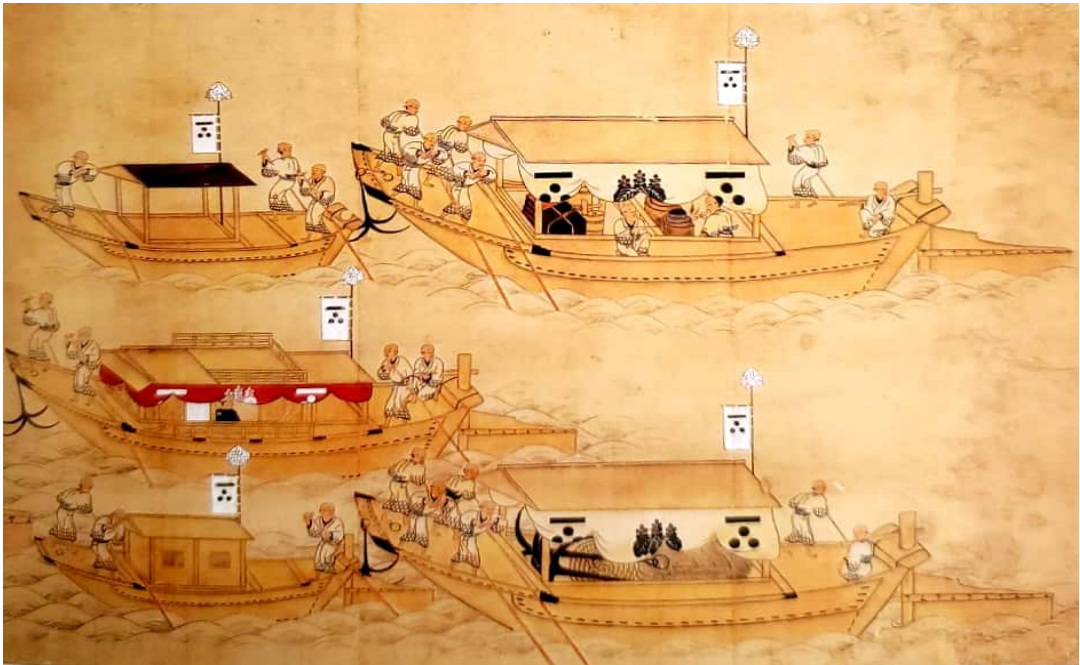
岡山県玉野市日比の沖をゆったり通過する朝鮮通信使一行の6隻の船団と警団案内する船団を記録的に描く(四宮家蔵)
 오카야마현 다마노시 히비의 바다를 천천히 통과하는 조선통신사 일행의 6척 선단과 경호와 안내를 하는 선단을 기록한 그림(시노 미야 가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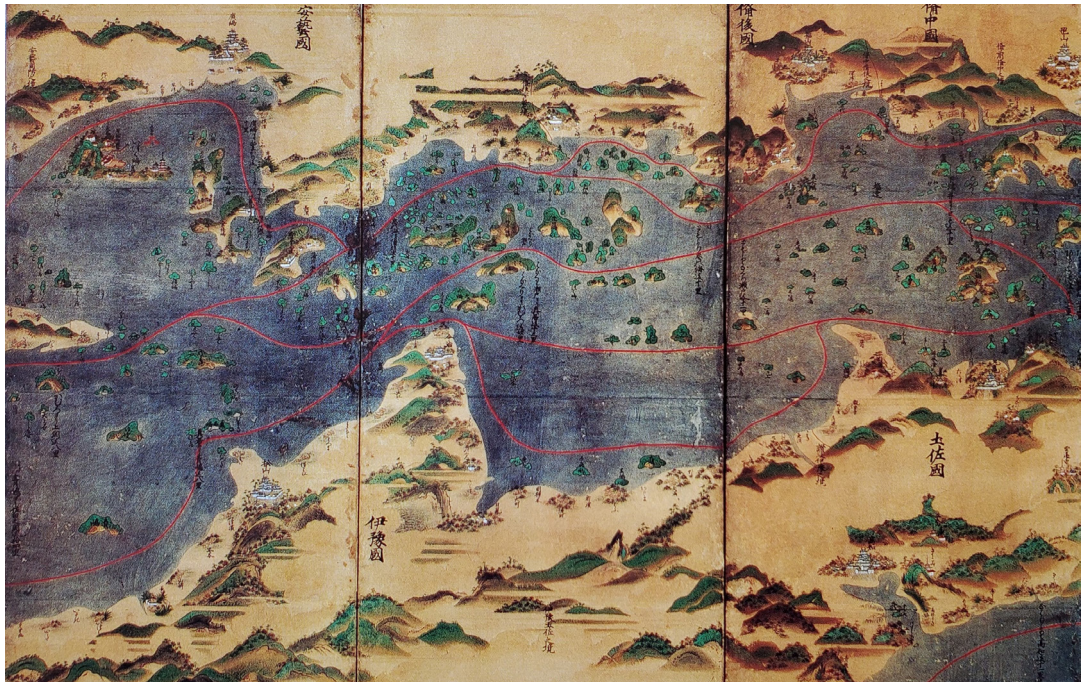
上々官第三船図, 1711年(正徳元)年の通信使上々官が乗船した船は長州藩が接待を担当した御馳走船である。長州毛利家の船印「一文字三星」と「五七桐」のはたと帳幕の紋章は長府毛利家の紋章である。長州藩主松平民部大輔(毛利吉元)の命により支藩長府毛利家の川御座船が提供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辛基秀旧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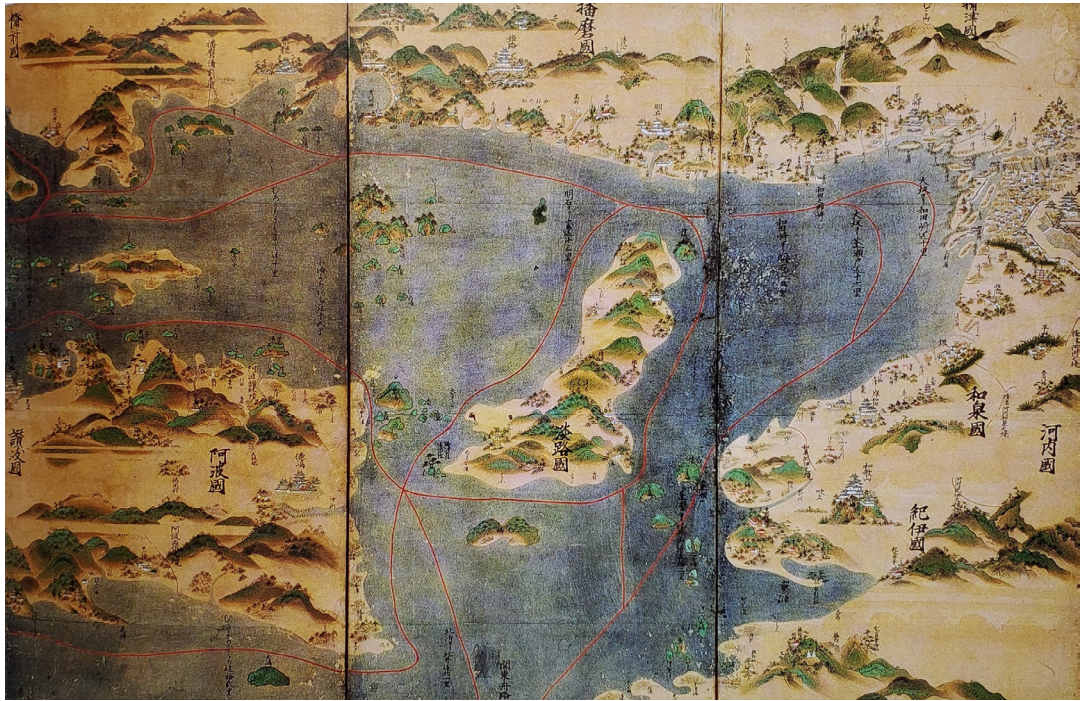
상상관제삼선도, 1711년의 통신사 상상관이 승선한 배는 조슈 번이 접대를 담당한 접대용 배다. 조슈 모리 가문의 배라는 표식인 '한일자에 별셋'과 '고시치노 기리'(五七桐)의 깃발과 장막 문장은 조후 모리 가문의 문양이다. 조슈 번주 마츠다이라 민부다이유(직책명)(모리 요시모토의 별칭)명령에 따라 지번(支藩)인 조후 모리 가문의 배가 제공된 것으로 생각된다.(신기수 소장)



上々官第三船の曳舟-상상관 제삼선을 끄는 배

西海筋海路図屏風(堺市博物館蔵)
서해근해로도 병풍(사카이시박물관 소장)





B. 陸路・육지—川船と輿、馬 배와 가마,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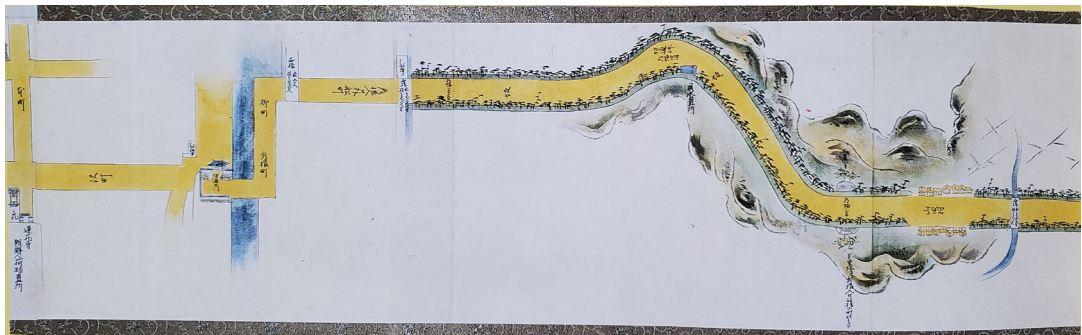
陸旅は、淀で下船してから京都、大津、名古屋・浜松・静岡・箱根等を経て江戸に着きました。大坂からは川御座船に乗り換えて淀川を遡航し、淀からは輿(三使)、馬(上・中官)と徒歩(下官)で行列を連れ、陸路を京都を経て江戸に向かうルートを取りましたが、近江国では関ヶ原の戦いで勝利したのちに徳川家康が通った道の通行を認めています。この道は現在でも朝鮮人街道(野洲市から彦根市)とも呼ばれています。吉例の道であり、大名行列の往来は許されなかった街道です。このルート選定については、朝鮮人は幕藩体制のヒエラルキーの外側にいるためであったという見方とともに、徳川家の天下統一の軌跡をたどることでその武威を示す意図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する見方もあります。江戸城では朝鮮国王から將軍への国書の奉呈があり、数日後に將軍から朝鮮国王への返信と礼物があり、三使や使節一行にも礼物や礼銀が贈られて通信使一行は帰途につきました。旅程にかかる時間は、1719년을例にすると対馬から大坂の海路に45日間、大坂の滞在に6日間、大坂から江戸の陸路に18日間をかけています。全行程には8ヶ月から10ヶ月の日数を要し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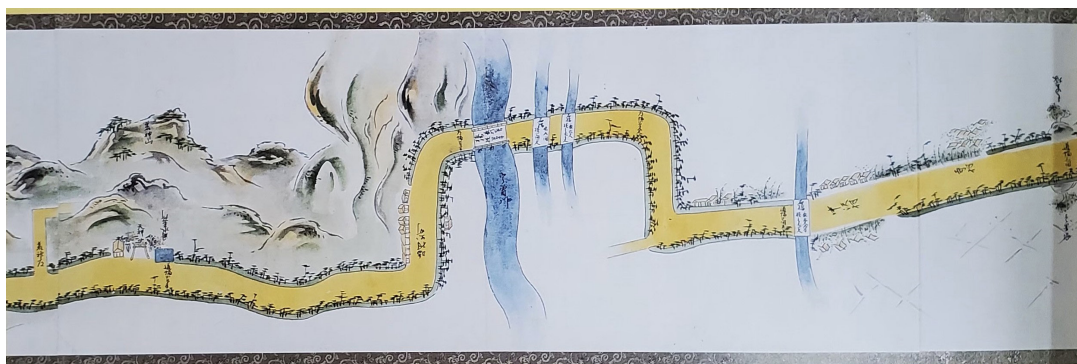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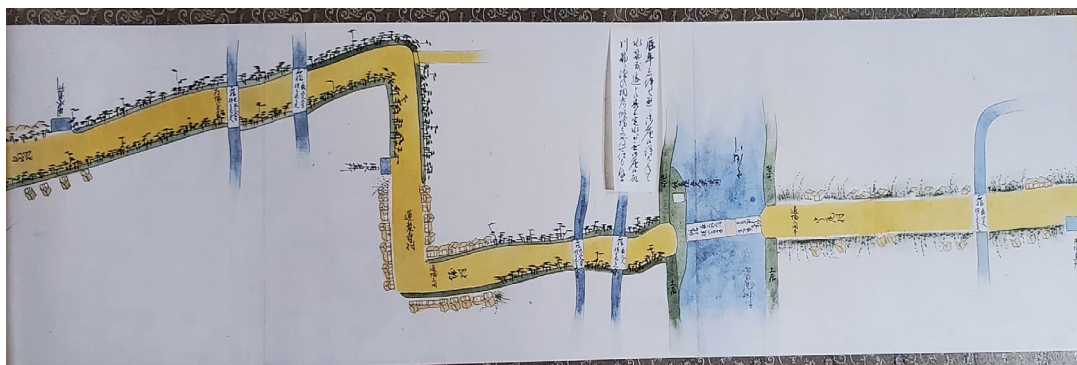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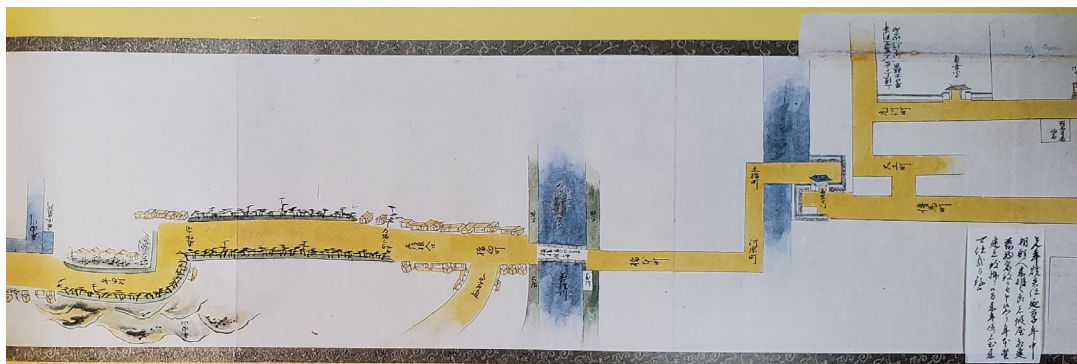
육로는 요도에서 하선한 후 교토, 오즈, 나고야, 하마마츠, 시즈오카, 하코네 등을 거쳐 에도에 당도했다. 오사카에서는 배(가와고자부네)로 갈아타고 요도강을 거슬러 오른 후, 요도에서는 삼사는 가마, 상관과 중관은 말, 하관은 도보로 교토를 거쳐 에도로 향했다. 오미국에서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나간 길의 통행을 허용했다. 이 길은 현재도 조선인 가도(야스시에서 히코네시)라고 불리고 있다. 길례(吉例)의 길이며, 지방 영주 행렬의 왕래는 허용되지 않았던 길이었다. 이 루트 선정에 대해서는 조선인은 막번 체제의 신분 제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함께 도쿠가와 가문의 천하 통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그 무위를 보여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에도성에서는 조선 국왕이 장군에게 보내는 국서 봉정이 있고, 며칠 후에 장군으로부터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답신과 예물이 있었고, 삼사나 사절 일행에게도 예물과 예은(禮銀)이 주어져 통신사 일행은 귀로에 올랐다. 여정에 걸리는 시간은 1719년을 예로 하면 대마도에서 오사카의 바닷길에 45일 간 오사카의 체류에 6일 간 오사카에서 에도까지 육로 18일이 걸렸다. 전 구간에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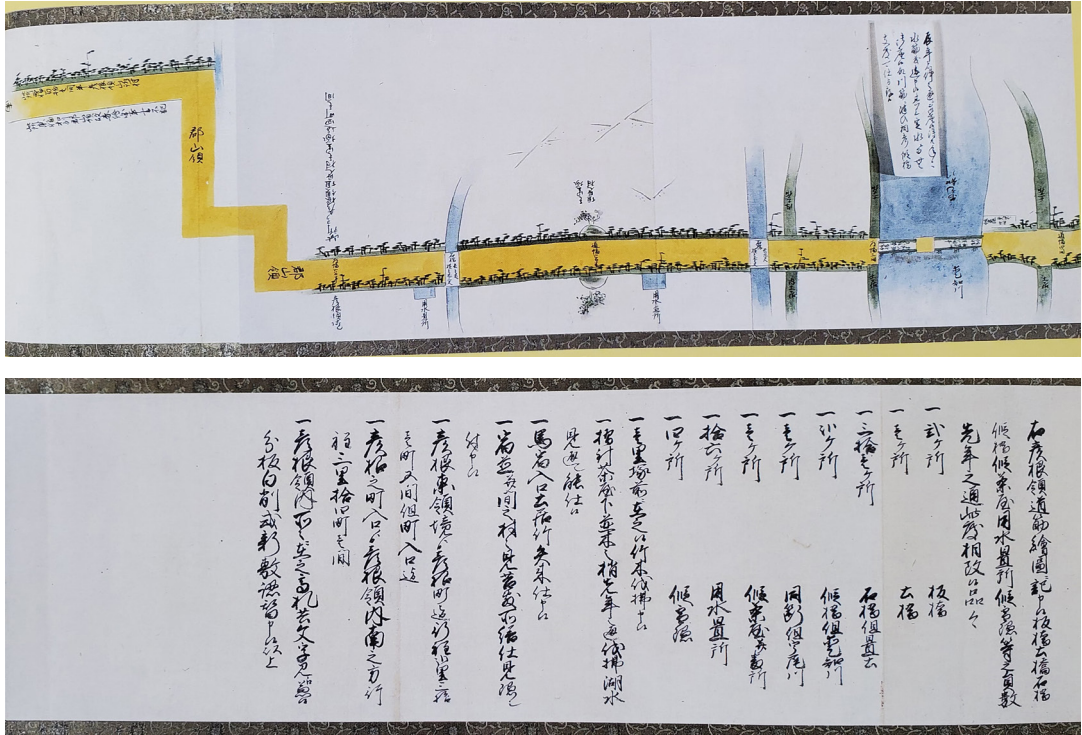


1682(天和2)年の上判事が乗船する第一船の松平淡路守(徳島藩)の川御御座船(辛基秀藏)
1682년 상판사가 승선하는 제 1 선 마츠다이라 아와지노카미(토쿠시마번)의 배(신기수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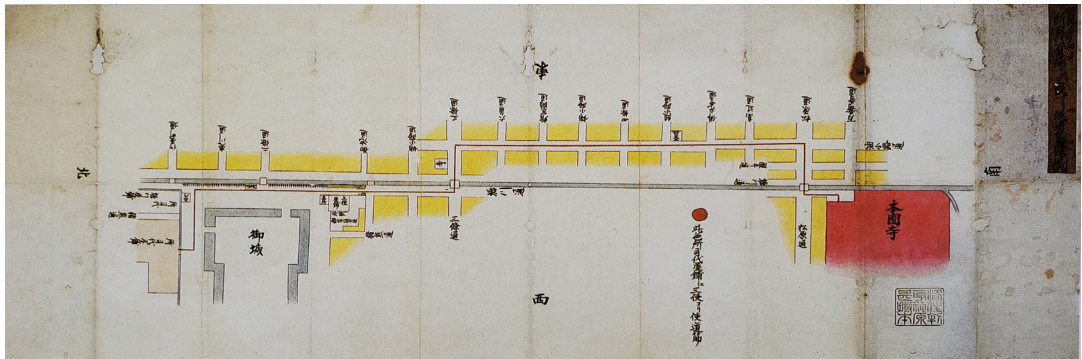
彦根藩嶺朝鮮人街道修復之図と朝鮮人京都往来道筋(個人蔵)
 히코네번 관할 조선인가도 수복도와 조선인 교토왕래 길(개인소장)







彦根藩領朝鮮人街道修復之圖、部分(別人藏) 히코네번령 조선인가도 수복도, 부분(개인소장)



朝鮮人京都往來道筋繪圖(個人藏) 조선인교토왕래도로 그림(개인소장)